

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싱가포르, 현대중-대우조선 기업결합 '무조건 승인'

싱가포르 경쟁·소비자위원회(CCCS)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'무조건 승인' 판정을 통보했다고 보도됨.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번째다.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를 접수한 뒤, 약 1년간 1,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왔다고 보도됨. (조선비즈)

한국조선해양, 에탄운반선 2척 수주..2,600억원 규모

현대중공업이 아시아 소재의 선사로부터 98,000CBM급 에탄운반선(VLEC) 2+1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. 척당 선가는 1.1억달러이며 2022년 5월 인도 예정이라고 보도됨. 현대중공업은 이미 3척의 동급 에탄운반선을 건조 중이며 이번에 2척을 추가해 총 5척의 에탄운반선을 건조하게 됐다고 보도됨. (이데일리)

삼성중공업, 2억2,000만달러 상당 세계 최대 VLEC 2척 수주

삼성중공업이 아시아 소재의 선사로부터 98,000CBM급 에탄운반선(VLEC) 2+1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. 척당 선가는 1.1억달러이며 2022년 6월 인도 예정이라고 보도됨. 삼성중공업은 이번 건조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발주된 VLEC 18척 가운데 11척(61%)을 수주하며,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품질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보도됨. (파이낸셜뉴스)

Three shipyards score \$880m in VLEC orders from Zhejiang Satellite

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각각 2척씩 수주한 98,000CBM급 VLEC의 발주처는 중국의 석유화학기업 Zhejiang Satellite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됨. Zhejiang은 국내 2개 조선사와 2+1척씩 계약을 체결했으며 자국 조선소인 Jiangnan Shipyard에도 2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. (TradeWinds)

Gazprom-backed LNG project wins extra funding

러시아의 Ruskhimalliance가 장기간의 노력 끝에 자국 VEB 은행으로부터 기금을 유치했다고 보도됨. 파트너인 Gazprom과 건설 계획 중인 Baltic LNG 플랜트 및 polymer 생산 설비에 대한 기금 유치이며 7.4억달러까지 확보할 전망이다라고 보도됨. Gazprom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다고 보도됨. (Upstream)

More assets to go: Petrobras to sell 26 fields in Brazil

브라질의 석유업체 Petrobras가 Potiguar 분지 내 shallow-water, onshore field 26개를 매각한다고 보도됨.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산포트폴리오의 최적화 노력의 일환이며, 향후 회사는 심해/극심해 프로젝트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보도됨. (Upstream)